

전체 주제:
주님의 회복 안의 현재의 필요에 대한 핵심 항목들

메시지 1

주님의 오시기 전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알고
합당하게 균형잡힌 인간 생활을 살며
대환난 전에 휴거됨

성경: 마 24:32-44, 눅 17:31-36

I. “노아의 때와 같이,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.” — 마 24:37.

A. ‘오심’(파루시아)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‘임재’를 의미한다 — 마 24:33.

1. 고대에 이 단어는 존귀한 사람이 오는 것에 적용되었다. 신약에서 이 단어는 가장 존귀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킨다.
2.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될 것이다. 그분의 파루시아는 사내아이(계 12:5)와 첫열매(계 14:1-4)의 휴거와 함께 시작할 것이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과 함께 끝날 것이다 — 마 24:27, 살후 2:8, 유 14.

B.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.

1. 노아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안에서 살았다 — 창 6:1-22.
 - a.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로 사탄의 악한 본성이 사람 안으로 주입되었다 — 창 3:1-6, 요 8:44.
 - b. 두 번째 타락에서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발전되었다 — 창 4:16-24, 요일 5:19 하.
 - c. 세 번째 타락의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악하고 비뚤어지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산출했고 악한 어둠의 세력은 땅을 부패시키고 폭력으로 땅을 가득 채웠다 — 창 6:1-13.
2. 마태복음 24 장 37 절부터 39 절까지와 누가복음 17 장 26 절과 27 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시대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다.
 - a. 홍수 전의 노아 세대와 소돔이 멸망하기 전의 롯 세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생활 상태는 대환난과 주님의 파루시아 전에 있을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 상태를 묘사한다 — 마 24:21, 3, 27, 37, 39.
 - b. 우리가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려면, 반드시 오늘날 인간 생활의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한다 — 눅 21:34-36.

II. “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, 한 사람은 데려가고,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.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, 한 사람은 데려가고,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.” — 마 24:40-41.

A.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.

B. ‘데려가고’는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— 마 24:21, 계 3:10.

1. 휴거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 단계, 즉 우리의 몸의 변형 곧 구속이다 — 롬 5:10, 8:23, 빌 3:21.
2.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받아들인 신성한 생명의 요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강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추구하기를 갈망한다 — 살전 1:10, 2:19, 3:13, 4:15, 5:23.

3.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되고 예언된 것에 따라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휴거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한다 — 마 24:40-41, 눅 17:31-36, 21:36.
- C. 마태복음 24 장 40 절과 41 절은 은밀한 휴거, 즉 준비되고 성숙된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.
 1. 휴거되는 이와 남겨지는 이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에 있다. 휴거되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이고 남겨지는 이는 성숙하지 않은 이이다 — 히 6:1.
 2.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.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준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성숙되어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.
- D. 마태복음 24 장 40 절과 41 절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에 있어서 신실해야 하고 합당하게 균형잡힌 인간 생활을 살아야 한다 — 비교 살후 3:6-15.

III. 누가복음 17장 31 절부터 36 절까지는 휴거를 위한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말한다.

- A. 이 구절들은 혼생명이 죄로 가득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한다. 여기서의 주님의 명령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기는 것과 관련된다 — 눅 17:34-36.
- B. 살아 있는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는가의 여부는 그들이 가라고하는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. 휴거는 은밀하게 예기치 않은 때에 발생할 것이다 — 눅 17:31.
 1. 이러한 부름은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가졌던 생활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 순간의 기적적인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.
 2.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참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이 보물이 주님 자신이라면 뒤로 돌아볼 것이 없을 것이다 — 눅 17:32.
 3.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하여 영 안에서 주님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— 눅 17:31.
- C. 어떤 이들은 주님의 파루시아의 누림 안으로 휴거될 수 있도록, 이 시대의 무분별한 생활로 그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겼기 때문에 휴거될 것이다 — 눅 17:26-30, 34-36.
- D. 누가복음 21 장 34 절부터 36 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“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다.